

『齊民要術』의 菖가 백제의 김치 인가에 관한 기술의 접근적 연구(I)

김 상 보

대전보건대학 전통조리과
(1998년 5월 접수)

The Accessible Study on the Hypothesis About Seeing if Jeo(Kimchi) of 『Chea Mihn Yho Sul』 is Back-Jae's Kimchi.

Sang-Bo Kim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Received May, 1998)

Abstract

Ka Sa Hyeob, who wrote 『Chea Mihn Yho Sul』, lived in the times of Book-Wi (A.D. 386-535) and his birthplace was San-Dong Peninsula.

If the Back-Jae dynasty governed San-Dong Peninsula during A.D. 285-500, Jeo(Kimchi) of 『Chea Mihn Yho Sul』 should be investigated as Back-Jae's Kimchi, because it accorded with Ka Sa Hyeob's time of existence.

I. 서 론

김치류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였는가에 관해서는 고대의 문헌적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다만 김치를 지칭하는 중국의 한자인 저(菹)의 발달사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전에 중국에서는 신맛의 저를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김치의 원형은 바로 이 신맛의 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다.

동이문화권과 백제사로서 유추해 보았을 때 『제민요술(齊民要術)』이 쓰여졌던 당시의 산동반도가 백제의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제기하고, 한반도의 김치의 기본은 『제민요술』에서 찾을 수 있음을 제기한다.

II. 저(菹)

저(菹)란 김치를 가르키는 한자로서, 주(周)대의 예법을 한(漢)대에 기록하였다고 되어있는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에 저가 기록 되어 있다. 식사예법을 기록한 『의례』 「공식대부례(公食大夫

禮)」에서는 창포뿌리·무·부추로 저를 만들어 육장〔醢〕에 찍어 먹도록 하고 있으며(金, 108-110), 『주례』에 의하면 혜인(醯人)이라는 관청이 있어서, 혜인에는 염(奄, 신관)2인, 여혜(女醯)20인, 해(奚, 女奴)20인으로 구성되는데, 5종류의 제(醢, 양념할 "제")와 7종류의 저(菹)를 담당한다 하였다. 혜인의 5제 7저(五醢七菹)의 직무는 종묘제사에 올리는 5제·7저·7해(七醯)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었고

5제 : 창포뿌리·소의위·대합·돼지의 어깨고기·부둘의 어린싹

7저 : 부추·순무·순채·아우·미나리·죽순·가는 대의 순〔筭〕

이다. 여기서 제와 저는 전부 초장(醋醬)에 조화시킨 것으로 제는 채소이든 육류이든 잘게 썬 것이고, 저는 통채로 또는 크게 썬 것을 지칭한다(『周禮』「天官家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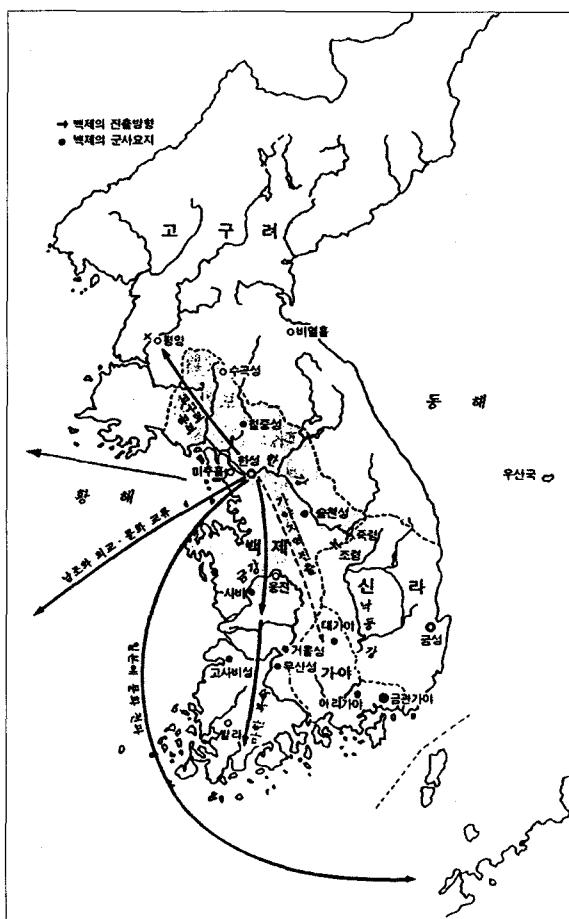
저(菹)가 기록되어 있는 중국 최고(最古)의 문헌은 『시경(詩經)』의 「소아(小雅)」로서, 여기에는 밭의 오이로 정성들여 저를 담궈 조상께 바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저를 만들어 제사상에

을렸다는 이야기 이지만, 저가 어떠한 맛인가에 대해서는 『여씨춘추(呂氏春秋)』(B.C 238~207)에 비로서 신맛이 매우 강한 것임을 시준하고 있으며, 『설문해자(設文解字)』에서는 초에 절인 오이가 곧 저(菹)라고 가르켜 주고 있다. 한편 『석명(釋名)』(A.D 2세기경?)에는 소금에 절여 산을 생성시켜 숙성한 것이 저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의 저란 채소를 초에 담그거나 숙성에 의하여 신맛을 생성시킨 것으로(李a, 432-434) 저를 단독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신맛의 저를 육장에 찍어먹는 형태의 것이었다(金, 108). 즉, 중국의 저는 단순한 신맛의 저로서 복잡한 맛을 내는 『제민요술』의 저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의 역사는, 신맛의 저가 복잡한 맛을 내는 『제민요술』의 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제민요술』의 저는 중국의 것이 아니라 백제문화의 다양한 맛을 내는 저로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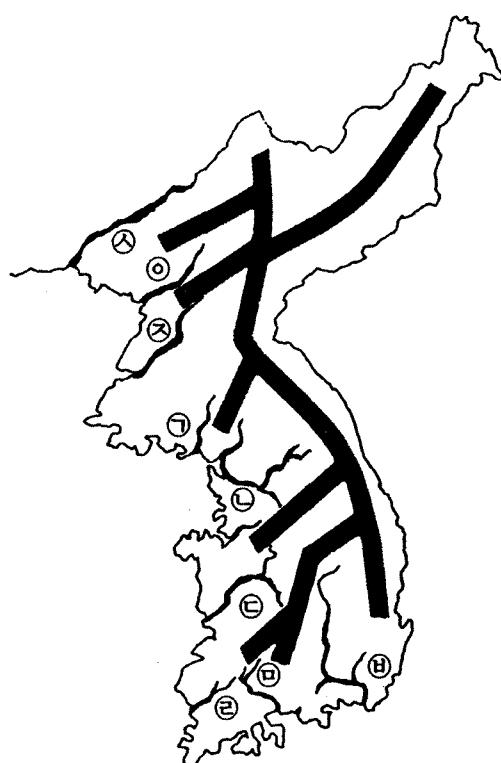
III. 『齊民要術』과 백제와의 관계

1. 백제의 문화권에 속한 산동반도

우리나라의 강은 낙동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흐르고 있다. 그것은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 등뼈처럼 동해안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 대간에서 산맥들이 또한 서쪽으로 발달해 있어서 지형상으로 보아 동고서저(東高西低)가 되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을 택해 서쪽 방향으로 흐름으로서 동쪽은 고지대인데 반하여 서쪽은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농경문화 형성의 최적지가 되고 있다. 특히 백제의 영토 지역(그림 1)이 가장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①한강 · ②금강 · ③영산강 · ④섬진강 들로 형성하는 평야는 논(水田) 농사의 최적지이다. ⑤청천강 · ⑥대동강등이 형성하는 평야도 서쪽에 위치하



〈그림 1〉 전성기인 근초고왕대의 백제의 발전



〈그림 2〉 한반도의 산악과 강

고 있지만 산맥의 장애로 발달하지 못하였다(그림2)(趙, 246).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비옥한 땅은 사람살기에 좋은 곳이었으며, 인구가 집중되었고 물산이 풍부한 까닭에, 이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생성되었다. 백제사의 시기를 구분한다면 한성시대(B.C18~A.D475), 응진시대(A.D475~538), 사비시대(A.D538~660)의 세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백제를 건국한 주체 세력은 부여족(扶餘族) 계통의 고구려 유이민(流移民)이다. 백제왕실은 그 성씨를 부여씨, 국호를 한 때 남부여라 칭한데에서도 알수 있듯이 스스로가 부여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였다(李b, 34).

백제는 근초고왕 24년(AD369)대를 전후하여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그림1). 이때 요서(遼西)·산동(山東)·북경(北京)을 빼앗아 요서·진평(晉平)군을 두었는데, 백제의 우세한 해군력은 산동·발해연안을 지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화북 진출의 시기는 A.D360~370년 대로서, 고구려 세력에 밀려 웅진시대를 개막한 시대인 A.D500년을 전후하여서는 요서지방을 상실하였다고 하고 있다.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다른 의견은 AD285년대를 시발로 요서에 진출이 시작되었으며 근초고왕(AD346~375)·근구수왕(AD375~384) 때에 백제군의 세력은 켰고, 5세기 말 동성왕(AD479~501)까지 계속되었다는 논조도 있다(申, 217-224).

백제의 요서 영유에 관한 중국의 남조계 사서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 『양서(梁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요서·진평 2군의 땅에 백제군은 두었다. 다스리는 곳의 성을 고마(固麻)라 하고 읍을 담로라 하였다. 모두 22읍로가 있고 자체 종족이 다스린다”는 것이다.

백제의 요서 영유에 반대하는 이론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고대국가의 발전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과시했던 낙랑·대방이 4세기에 고구려·백제의 성장에 의하여 요서 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낙랑·대방의 요서이동을 중국 남조계의 사서는 백제로 잘못 인식하여 기록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유, 228-229).

중국 남조계의 사서류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漢)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당시 남조계가 북방민족에 반발하고 있었던 탓으로 백제에 대한 응호성 기록이기도 하다는 상기의 주장을 『요동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기록에 의하여,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주를 비롯한 요동·요서 등의 일대를 기록한 明

代의 요동지지(地誌)인 북조계 사서류 『요동지(遼東志)』에는

“百濟

馬韓五十四國. 百濟其一也. 初以百家濟. 因號百濟. 晉時略有遼西. 晉平 其國. 東西四百里. 南北九百里. 南接新羅. 北拒高麗. 西限大海. 海中 有三島. 出黃漆樹. 似棕樹而大. 六月取什. 漆物器若黃金. 自晉代受蕃 爵. 宋齊並遣使朝貢. 授官. 武后時. 爲新羅渤海靺鞨所分. 百濟遂絕.

백제

마한 54국이다. 백제는 그중 하나이다. 처음에 100家가 물을 건너 왔기 때문에 百濟라 불렸다. 진(晉)의 초기에 요서를 약유하였다. 진평(晉平)이 그 나라이다. 동서 4백리이고, 남북 9백리로, 남으로는 신라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고구려가 있다. 서쪽으로大海로 막혔고, 바다 속에는 섬이 3개가 있는데 황칠 나무가 나온다. 종려나무와 비슷하고 6월에 즙을 채취한다. 칠물기는 황금 만큼 귀하다. 진(晉)대에는 많은 작위를 받았다. 송(宋) 제(齊)에 사절을 파견하여 조공하였으며 관(官)을 주었다. 신라·백제·말갈로 쪼개졌고 후손이 없으며, 백제는 없어졌다.”

백제가 진(晉, 265-316)¹⁾의 초기에 요서를 약유(略有)하였고, 그 지명이 진평(晉平)이라는 것이며, 백제는 망하여 신라·발해·말갈로 쪼개졌다는 것이 본 논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앞서 기록한 AD285년 대를 시발로 해서 요서에 진출하였다는 내용과 근접되는 기록이고, 요서에 두었던 진평은 망하여 발해·말갈로 갈라졌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백제가 요서에 진출하였을 때의 중국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였던 시기였다. AD220년 후한(後漢)이 망하고 나서 죽(蜀)·위(魏)·오(吳)의 삼국시대가 된다.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전(晉, 265-316)이지만, 북방 유목민이 끊임없이 북쪽에서 월기하는 혼란한 시기로서, 중국의 남쪽은 동진(東晉, 317-420)·송(宋, 420-479)·제(齊, 479-502)·양(梁, 502-557)·진(陳, 557-589)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북쪽은 오후 16국(五胡 16國, 316-439)·북위(北魏, 386-535)·서위(西魏, 535-557)·동위(東魏, 534-550)·북주(北周, 557-581)·북제(北齊, 550-577)·수(隋, 581-618)로 이어졌다.

진(晉, 265-316)의 초기 혼란한 요서 일대를 백제가 점령하여, 영토화하였다는 중국족의 남조계사서류와 『요동지』의 기록은, 중국이 자기 나라에 불리한 백제의

1) 西晋이라고도 함

요서 점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록한 논과 밭을 갖고 있는 백제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북쪽의 고구려와 동쪽의 신라에 맞서서, 백제는 한층 더 북쪽의 요서와 남쪽의 일본과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가 약유(略有)하여 진평(晋平)을 두었다는 곳은 『제민요술』의 저자인 가사협(賈思勰)이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산동성(山東省)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인명대사전(中國人名大辭典)』에 의하면, 가사협은 북위(北魏, 386-535) 때의 산동성의 태수로 『제민요술』을 썼으며 그 저술 시기는 A.D500년대 전후로 보고 있다. 가사협은 『제민요술』의 서문에 농사를 스스로 짓고 해(醢)를 만들어 즐겼으며 [醡醡醢], 해를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위는 봉고종족인 척발(拓跋)씨가 세운 나라로서 14대의 149년간 요동의 서부를 위시하여 산동·산서·감숙·강소·하남·하북·협서의 북부를 통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遼東志』).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척발족은 선비(鮮卑) 유목민으로 본래는 농경민이 아니었다. 척발족이 건설한 위(魏)는 북동의 변경에서 점차 남하하면서 농경화로 정착되어, 310년에는 내몽골의 성락(盛樂)을 수도로 삼고 대(代)라는 국호를 세웠다. 376년 진(晋)의 부건에 의하여 일단은 멸망하였지만, 진(晋)이 비수의 전투에서 패함에 따라 북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서 척발규(拓跋珪)가 대(代)의 재흥에 성공하고 성락으로 돌아왔다. 395년에는 재위에 올라 도무제(道武帝)라 칭하고 398년에 수도를 평성(平成, 山西省 大同)으로 옮겼다. 그의 손자인 태무제(太武帝) 때 북중국을 통일하였고(A.D 439), 7대째인 효문제(孝文帝)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게 된다.(A.D 494)(한, 151-152)

A.D 285년부터 A.D 501년까지 백제가 산동반도에 진평(晋平)을 두어 약유하였다면, 북위의 태무제가 북중국을 통일한 시기인 A.D 439년에 산동성을 북위의 영토로 하였을 경우,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해(醢)를 만들어 그 직업에 종사하였던 가사협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봉고계의 척발족이 아닌 산동반도의 토착 농경민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가사협이 『제민요술』을 썼던 시기가 북위의 시기라 하더라도, 『제민요술』속에는 백제의 문화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가사협(賈思勰)은 중국인인가 백제인인가 하는 문제

『제민요술』의 저자인 가사협의 출신지는 가사협이 살고 있었던 산동반도의 그 당시 소속 국(國)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事典)』에 의하면 가(賈)의原姓은 姬(周의 姓)로서, 주(周)의 성왕(成王) 동생인 숙우(叔虞) 아들(未子)공명(公明)을 賈에 봉하고 가백(賈伯)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이 賈姓을 전승하였다고 되어 있다²⁾. 다시 말하면 중국계의 賈氏는 주(周)의 후손인 셈이다.

한편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는 일본 고대의 1182姓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백제계의 성씨도 상당히 기록되어 있어서 백제계의 성씨 중 賈氏는 백제국인 가의지(賈義持)의 후예라고 되어 있다(임, 18)³⁾.

『신찬성씨록』이 쓰여졌던 A.D 811년, 일본의 성씨 전2358성 가운데, 백제·고구려·신라인의 성이 710姓으로 30%를 차지하고, 그 중 64.4%가 백제의 성씨인 120姓인데, 120성 가운데 賈씨 성은 백제인 賈義持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즉 8세기 이전에 京都·大阪·奈良을 중심으로하여 중앙에서 활동했던 한국계는 백제인들이 일본에 가장 많이 건너가서 활동하였고 중요한 성씨로 알려져 있었다(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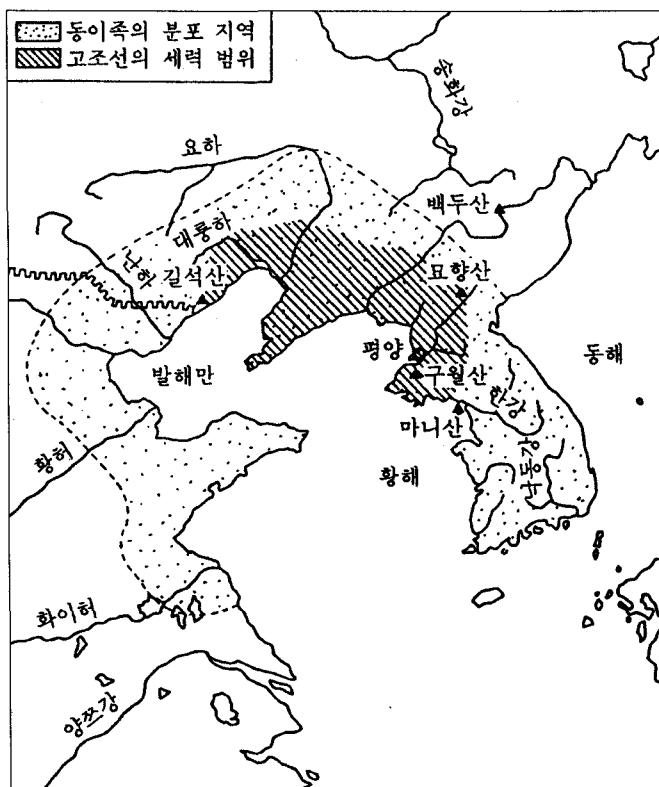
『신찬성씨록』에 의하여 밝혀진 백제인 賈義持에 의하여, 백제에도 賈氏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제민요술』의 저자 가사협(賈思勰)은 중국계 한족(漢族)이 아니면 백제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이 이상의 명확한 가사협의 국적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다만 가사협은 몽골계 척발족이 아닌, 산동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갔던 그 지방의 출신일 가능성 이 높다는 사실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산동반도를 포함한 밸해만 연안 일대가 백제의 영유지였던 낙랑·대방의 주민들이 살았든 간에, 황해를 둘러싼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한반도에 이르는 동이(東夷)문화권의 문화적 공통성을 필자는 또한 제기하고자 한다(그림 3).

IV. 결 론

중국의 저(蒞)는 단순한 신맛의 저로서 복잡한 맛을 내는 『제민요술』의 저와는 확실히 다르다. 역사적으

2) 나라를 創國하면 姓이 생기고 姓의 分派支系를 氏라 칭하였다.

3) 『新撰姓氏錄』, 日本 嵯峨天皇 私仁 二年(A.D 811)의 문헌



〈그림 3〉 동이족의 분포

로 보았을 때 『제민요술』을 저술한 가사협(賈思勰)의 생존 시기가 북위(北魏, 386-535)의 시기이고, 산동반도의 태수로서 가사협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만일 백제가 요서를 진출하여 진평(晋平)을 두었던 시기가 A.D 285-500년경이라면,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로, 『제민요술』의 저(范)는 백제문화의 다양한 맛을 내는 저로서 접근적 究明을 하였다.

■ 참고문헌

1. 『周禮』「天官家宰」
2. 『詩經』「小雅」
3. 『呂氏春秋』
4. 『說文解字』
5. 『釋名』
6. 李盛雨 a, 「中韓日에서의 菘菜類의 변천과 교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논문집 제 9집』, 1975
7. 趙載勸, 「백제의 언어와 문학」,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8. 李基東 b,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9. 申潛植, 『百濟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0. 『宋書』「百濟國傳」
11. 『南齊書』「百濟國傳」
12. 『梁職貢圖』
13. 『梁書』「百濟傳」
14. 『南史』「百濟傳」
15. 『通典』
16. 金尚寶, 「東アツアにおける 儀禮の饗宴」,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19卷 1号, 1994
17. 유원재,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18. 『遼東志』
19. 『中國人名大辭典』
20. 한경수역, 『불교사의 전개』, 渡邊照宏著, 불교시대사, 1992
21. 『中國姓氏事典』, 中日民族科學研究所
22. 『新標姓氏錄』, 811
23. 임동권, 『日本安의 百濟文化』, 규장각, 1996